

참관기 ▶ 5면

AES 59th Conference 그 열띤 현장 속으로!

기획 ▶ 6면

책과 함께 떠나는 여름휴가

오피니언 ▶ 7면

[칼럼] 구글과 EU,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공영방송 이사 8월 중순에야 윤곽 나온다

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 연기



차기환 방문진 이사



김광동 방문진 이사



고영주 방문진 감사



이인호 KBS 이사장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방통위는 7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추후 회의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8월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7월 30일 “일부 안전에 대해 상임위원들 간 협의, 정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어 7월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40차 전체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일부 안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안전에 대한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의 의견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가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방통위가 방송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임하고 이 모든 과정은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방통위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KBS와 방문진 후임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그 결과 KBS 이사에 96명, 방문진 이사에 60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이들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추후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 연기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을 놓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구체적인 인선 기준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이를 의식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7월 2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자의 세 번째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공영방

송의 이사 3연임(9년)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이사직 독점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해야 한다”며 △3연임 금지 △정파적 나눠먹기 금지 △편성 및 제작 자율성 침해 인사 금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비율을 여야 정치권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 관행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적임자 인선이라는 인사 원칙에도 걸맞지 않는다”며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성과 전문성, 그리고 품격을 두루 갖춘 최선의 적임자가 인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9기 방문진인 차기환, 김광동 이사와 고영주 감사 등이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로 하마평에 오르

고 있다. 차기환 이사는 2009년 7월 정부여당 추천 몫으로 방문진 이사에 선임된 이후 총 6년 동안 방문진 이사직을 맡아왔고 이번에 KBS 이사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 이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간베스트(일베)’, ‘수컷닷컴’, ‘뉴데일리’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의 글을 퍼날라 여론의 눈총을 받아온 보수 인사다. 차 이사와 함께 6년 동안 방문진 이사를 맡고 있는 김광동 이사 역시 대표적인 우익 인사로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시 국정원을 적극 두둔하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이사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김 이사가 차기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고영주 감사도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꼽힌다. 고 감사는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 담당 검사

로 1982년 부산지검 공안검사를 지냈으며, 1995~1998년 대검찰청 공안기획과에서 근무했다. 특히 고 감사는 지난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한편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9월에 임명된 이인호 KBS 이사장의 연임도 확실시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이사장 임명 당시에도 극우적인 사상과 역사 인식이 공영방송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퇴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 측 일부 이사의 연임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연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은 그동안 안팎에서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인사들”이라며 “말로만 공(공)영방송 또다시 權(권)영방송 안 된다”고 규탄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전 대미문의 3연임”이라며 “방송 장악은 없었던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리며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하마평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다.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일부 이사가 확정된 것처럼 명단이 나돌고 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기초 단계가 마무리됐을 뿐 본격적인 인선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사 공모에 지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정부 주도의 ‘재송신 협의체’ 출발부터 ‘삐걱’

지상파 VS 유료방송 입장 차 여전...실효성 논란

지상파 재송신료(CPS)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재송신 협의체가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당초 7월 30일로 예정됐던 재송신 협의체 첫 회의는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 달로 연기됐다. 정부는 재송신 협의체를 통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의체를 통한 협상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일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재송신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와야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소

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CPS 협상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CMB를 상대로 지상파 재송신 콘텐츠 상품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CMB와의 재송신 계약은 지난해 12월에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콘텐츠를 가입자에게 무단 재송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가입자가 지 유지하고 있어 우선(협상 전) 신규 가입자 영업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와 SBS도 CJ헬로비전의 티빙(Tving)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며 법

정 싸움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는 KBS도 신규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고 있어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티브로드와 CMB를 포함해 MSO 5개사와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CPS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데에 지상파 방송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CPS를 내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는 이를 3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국민관심행사(올림픽 월드컵) 재송신 대가 50원을 포함한 400원으로 올

리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CPS 산정 기준이 명확치 않고 기존 280원의 CPS로도 충분하다며 CPS 협상에 적극 임하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CPS 금액 인상 조치는 현재 지상파가 처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고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IPTV 28%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광고 매출은 성장한 반면 지상파 방송사는 -3.5% 등 지난해에 이어 광고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중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송신 협의체는 정부 측 4명, 지상파 방송사 측 3명, 유료방송 사업자 측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 측이 협의체 참석을 거부하고 있지만 협의체 출범과 협의체를 통한 중재에 대한 정부의 의지

가 강한 만큼 다음 달에는 협의체가 출범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상파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야 할 재송신 협상을 정부가 중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 방통위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직권조정 개시권 도입 등 방송법 개정 추진 △방송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시청자 피해행위 시정 △방송 광고 불공정 행위 차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협의체 구성도 그 연장선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 측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도 협의체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불신의 폭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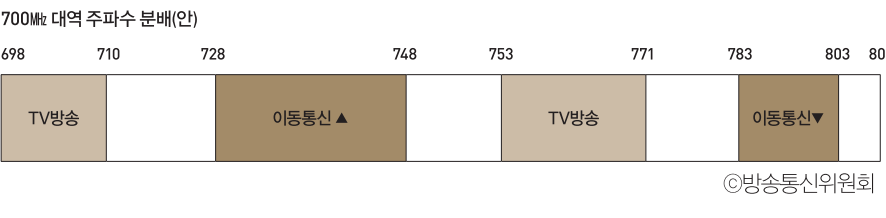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인내무 발송
- KOB(국제방송음향조정연구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정부, 700MHz 주파수 분배안 확정

방송용 30MHz 폭, 통신용 40MHz 폭, 재난망 20MHz 폭 활용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7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108MHz 폭의 700MHz 주파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30MHz 폭, 이동통신에 40MHz 폭, 국가재난안전통

신망(재난망)에 20MHz 폭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18MHz 폭은 보호 대역으로 운영된다. 주파수 분배표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 증하는 모바일 통신 수요에 대한 시장 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 콘텐츠 제작, 방송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고려해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방안은 방송과 통신 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방송 통신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미래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일에 대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미래부는 주파수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일종의 완충 구역으로 비워놓는 보호 대역과 미사용 대역을 기술적으로 검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 기소 의견 송치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혐의



©KBS·MBC·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 JTBC 관

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월 29일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28일 JTBC가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지상파 3사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이자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JTBC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당시 JTBC는 M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3초 후에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JTBC 측은 “MBC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JTBC가 내부 시스템에

있으며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5개 채널(30MHz 폭)을 분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방송과 통신 사이의 보호 대역을 10MHz 폭에서 5MHz 폭으로, 방송용과 재난망 사이의 보호 대역을 3MHz 폭에서 2MHz 폭으로 줄였기 때문에 각 영역 간 상호 간섭이 클 수 있다며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추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중계기 등 보호 장비 추가 설치로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28일 논평을 통해 “미래부가 통신 사업자들의 중요한 로비에 굴복해 방송과 통신에 딱 고정된 주파수 700MHz 대역을 쪼개어 고정정한 결정을 내렸다”며 “주파수의 미래적 가치를 도외시한 근시안적 주파수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방송용으로 분배된 30MHz 폭은 수도권에서 5개 채널을 운영하는데

도 매우 빠듯한 대역”이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주파수 간섭은 가우나 지형지물에 따라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안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수도권에 한해서만 지상파 UHD 방송이 도입되고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은 아예 UHD를 시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서비스라 불가해졌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통신용 주파수는 700MHz가 아닌 다른 대역에서도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하고, 모바일 광대역 플랜 2.0에 의하면 2023년까지 통신용으로 확보 예정인 주파수는 총 1,260MHz에 달한다. 또 세계 각국의 밴드 플랜이나 통신 방식 등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조화라는 주장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이번 결정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희 imaeonarm@naver.com

조사 결과를 일컫는 사전에 사용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측은 “JTBC의 방송은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놓고 그래픽 등 모든 방송 포맷을 준비해둔 것”이라며 “JTBC가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확보해 미리 내보낸 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사에 따르면 손 사장은 선거 한 달 전 선거방송 담당자에게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 준비를 보고 받고 방송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경위를 추적한 결과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가 그날 오후 5시 31분 동영언인 다른 이모(30·여) 기자에게 SNS 카카오톡을 통해 예측 조사 결과를 넘겼고, 이 기자가 다시 1분 후인 5시 32분 마이피플에 올린 내용을 JTBC 이모 기

자가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모두 정치부 소속이었다. 경찰은 김 기자가 어떤 경로로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조사하려 했지만 김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초기화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조사용역기관 직원 김모(46)씨가 모 기업 관계자인 또다른 김모(43)씨에게 예측 조사 결과를 흘린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지상파 3사는 이번 출구조사를 위해 간접비를 제외하고 직접비만 24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구조사에 무임승차하려는 고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높은 비용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물이 발표 후 바로 경쟁사에서 활용되는 현상이 인용 보도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반드시 짚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통신기술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위해 NCS 확대 개발할 것”



방송 통신 핵심 단체들과 기업들로 구성된 ‘방송통신산업기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가 7월 21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갖고 방송 통신 분야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자위는 방

송 통신 분야 국가직무능력기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분류 체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 능력을 정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해 국가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교육 모델과 학습 모듈을 만들고 있다. 현 NCS 분류 체계는 지난해 6월 20일 제3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분류 체계로 이중 방송기술 분야는 산업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NCS 분류 체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인자위는 “현재 방송 통신 분야의 6개 소분류 NCS 체계로는 진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인력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NCS를 시장 진화현으로 보완해가는 한편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성현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 대연합) 회장은 “신 직업직격은 기존의 국가직과 달리 산업계가 주도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술 발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방송 통신 분

야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자위에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 분야 주요 단체와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리드하는 방송 통신 인자위가 됐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현업 방송기술인들이 방송기술에 대한 NCS 분류 체계가 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능동부를 비롯한 NCS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ICT 대연합을 비롯한 방송 통신 분야의 산학연들의 힘을 모아 현장의 목소리

가 반영된 NCS 체계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NCS의 분류 체계가 직무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야만 교육 및 학습 모듈 등의 개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11개 산업별 인자위 중 방송통신기술 분야 인자위에는 ICT 대연합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주요 단체와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 KT, SK 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TV 지원 업무협약 체결

미래부-KBS-전자랜드프라이스킹 등 모아 사회공헌 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28일 KBS, 전자랜드프라이스킹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TV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012년 말 디지털 전환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현재도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디지털 TV를 전자랜드로부터 기증(2015년 100대, 2016년 100대)받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KBS는 농어촌 지역

에서 지원 가구 발굴 및 선정을 8월 말까지 추진하고, TV 수신 환경도 점검하는 등의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TV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012년 말 디지털 전환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현재도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디지털 TV를 전자랜드로부터 기증(2015년 100대, 2016년 100대)받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KBS는 농어촌 지역

전석희 imaeonarm@naver.com

결합 상품 ‘끼워 팔기’ 논란

“끼워 팔기로 ‘방송=무료’ 인식 확산”

“결합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필요해”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싸값에 묶어 파는 결합 상품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결합 상품을 둘러싼 불균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다뤄지기는 하면 결합 상품을 출시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받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올해 중으로 결합 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학계에서도 결합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장치의 필요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 콘텐츠 가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통신 사업자가 자신의 통신 상품 방어 및 추가 이익 획득을 위해 인터넷TV(IPTV)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어 책정하고 있어 콘텐츠 제공자에게 돌아

가야 할 수익이 정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합 상품의 구조적 문제를 제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합 상품은 통신과 집 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 여러 가지 상품을 묶어서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가입할 때보다 싸게 판매하는 상품으로 가입자 유지 효과가 높아 통신 사업자는 물론이고 케이블 사업자들까지 결합 상품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결합 상품을 통해 방송은 공짜라는 인식이 사회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결합 상품에서 방송 서비스는 인터넷 또는 통신 가입자 유지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제마나에 오기 전에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 요금제를 뽐내보니

정부의 재송신 중재?...“오히려 협상 저해할 것”

“방통위 개입, 특정 사업자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 방송 유지 및 재계 명령권, 재정 제도 등이 오히려 사업자 간 협상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디어 콘텐츠 가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송신 관련 개정안의 핵심은 시청자의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직권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방송 중단이 임박하는 경우 방송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유지, 재계 명령 제도 등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인

했다. 앞서 방통위는 4월 21일 △직권조정 △재정 제도 △방송 유지 및 재계 명령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방송 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이 지상파 블랙아웃을 종단함으로써 번지는 사태를 차단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직권조정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 과정에서 방송 중단 등의 문제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방송본질조정위원회에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 신청 없이도 개시 가능하다. 재정 제도는 올림파나 월드컵 등

업체의 단가수수로 정책을 인정과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로 지급정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입자가 감소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등급을 기록한 대비 60%-40%으로 축소하면서 2014년부터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 인상된 생산지원금을 각종 단가에 편입한 단가 총액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있다.

최 교수는 “티브로드의 당기 순이익은 2013년 900억 원에서 2014년 1,068억 원으로 상승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협력 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악덕 기업의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및 노동자들에게 대한 티브로드의 갑질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 시청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결국은 방송의 공공성까지 파괴될 것이란 지적이다. 티브로드는 지난 2013년 노조의 3월 파업 끝에 △원·허청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에 협조한다 △협력업체는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2014년도 9만원 임금인상을 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협력

“국민TV 사태 외면할 수 없다”...국민TV공대위 발족

국민TV 노조 비대위 제작 거부에 30명 출연 거부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동아지언론소호부평위원회 등 9개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단체가 ‘국민TV 사태의 물결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민TV공대위)’를 7월 30일 발족했다.

국민TV공대위는 “언론계의 소중환 자신이자 자원인 국민TV 사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

인터넷을 3년 약정을 할 경우 월 38,000원, 가족 3~4명을 묶으면 인터넷, 집 전화, IPTV 다 합쳐서 월 25,000원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방송 서비스의 값어치는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처럼 방송 콘텐츠 생산과 저널리즘을 요하지 않는 일종의 ‘무료’ 서비스로 인식하는 태도와 여러 다른 상품에 부가된 일종의 미끼로 취급하는 산업적 태도가 콘텐츠 생산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케이블과 IPTV 등 유료 매체의 경쟁이 콘텐츠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시장 내 가격 경쟁에만 집중된다 보니 유료 매체의 저가화와 결합 상품을 통한 과도한 할인 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콘텐츠 가치에 대한 수요는 배본백은 매우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국내 방송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훈 개입대 교수 역시 “우리 사회가 방송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제 가치를 지급하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콘텐츠 가치를 결합 상품에서 방송 서비스는 인터넷 또는 통신 가입자 유지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제마나에 오기 전에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 요금제를 뽐내보니

이어 정 교수는 결합 상품으로 인한 콘텐츠 저

미디어 콘텐츠 가치 정상화 방안 세미나 지상 중계

가화 추세와 콘텐츠 생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 붕괴 등 지금의 비정상적인 방송 사업 구조가 모두 잘못된 방송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방송 시장의 성장이라는 목표도 다양한 행위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인 실재로는 사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교수는 “통신의 지배력이 결합 상품, IPTV 등으로 방송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도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 플랫폼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송 정책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콘텐츠 저가화 구조를 타파하는 것은 단순히 이용자에게 대가 지불의 의무를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확보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방송 사업 및 콘텐츠 제공자들이 국내 방송 콘텐츠의 안정적 재생산과 재투자를 위해 필요한 직간접적 공적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산업적인 측면과 이중적 전략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의 권한을 유지하며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홍 교수는 “사업자 간 갈등에 대한 개입이 자칫 시장의 원칙을 위배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일정한 원칙 내에서 감내하고 있다”며 “재정송 협상에 불만을 갖는 유료매체들이 방송 유지 명령, 강제 중재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FC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이지 않기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완벽하지 △규제가 완벽하기라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두 가지 전제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 직접 개입이 효율적이지 않 수 없고, 중재기관이 완벽한 중립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즉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두 개의 큰 사업자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개입하지 않는 게 효율적이지 않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을 봤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분쟁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방통위의 재송신 갈등 개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방통위 주도의 재송신 논의에는 당초 7월 30일로 예정됐던 첫 회의를 8월로 연기되면서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석희 imaeonarm@naver.com

임금 인상분을 운영비용으로 증감처치하면서 연장근로 축소 및 희망퇴직, 폐업 협회 등으로 인력 감축과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당한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협력업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김 사무국장은 노동조합의 투쟁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기구로서 사회 연대 강화 △지역별 방송으로서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원·허청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협력 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악덕 기업의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및 노동자들에게 대한 티브로드의 갑질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 시청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결국은 방송의 공공성까지 파괴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승호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사무국장은 “티브로드정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낮은 단가 수준으로 직원과 가입자 대비 단가수수로 지급 방식 변경의 결과 협력업체에서는 협력업체에 내려온 비정규직 노동자

백선하 baek@kobeta.com

랜서를 노조에 가입시킨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TV 출연자 30명 중 절반이 7월 28일 출연 거부를 선언하면서 사태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국민TV 출연자 30명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민TV의 문제는 노사 지체적으로 조속한 사일 내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다. 이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계를 결정하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이다. 조직 개편 역시 기존의 보도국의 뉴미디어국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도 기능과 뉴스TV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직원인 아닌 프리

민서진 seojin@kobeta.com

케이블 드라마가 뜬다…방통심의위 “올해 중점 심의할 것” “시청자 접근성 커진 만큼 시청권 침해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

‘응답하라’ 시리즈, 직장인들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 ‘미생’, 청신한 소재로 관심을 받은 ‘나쁜 녀석들’, ‘갑동이’ 등 최근 들어 다양한 장르의 케이블 드라마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통통신심의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방속채널사용사업자(PP) 드라마에 대한 중점 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7월 29일 2015년 상반기 동안 신규 방송된 일반 등록 PP의 자체제작 드라마(PP 드라마)를 대상으로 각 채널별, 장르별 편성 현황 및 심의의 제재 현황 등을 분석한 ‘일반 PP 자체 제작 드라마 편성 및 심의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지상파 중심의 드라마 시청 환경에서 벗어나 심화적 소재, 청신한 콘텐츠로 내세운 PP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올 한 해 PP 드라마에 대한 심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우선 △유설 비속어 등의 언급을

비롯해 내용 전개와 무관하게 단순 웃음 유발 수단 및 등장인물 간 갈등 구조의 안이한 표현 방법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저속한 방송 언어’ △별도 영상물의 배치 등 간접광고의 허용 취지를 벗어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방송 프로그램 내 ‘부적절한 광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로열 등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방송으로 편성되는 ‘웹드라마’의 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심의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료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PP 드라마들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다만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커진 만큼 공적 매체인 방송으로서 시청자들의 정당한 시청권을 침해하거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릴라·액션물 4편 △코미디물 2편이 순이었다.

tVN 드라마 편성시간

구분	상반기 편성시간	비고
월화 드라마	22:50~00:15	주 1회(화) 편성, 월화드라마 배치 등의 과정
금토 드라마	20:25~21:40	주 1회(금) 편성, <응답하라 1994>(2013) 이후 주 2회 편성 정책
아침 드라마	09:40~10:30	주 4일(월~목) ▶주5일(월~금) ▶주4일(월~목)

* <응답하라1994>, <미생> 등의 성공 이후 금토드라마 편성 전략은 KBS-2TV 등 오하리 지상파를 포함한 타채널에서 시도

한편 올 상반기 신규 편성된 PP 드라마는 총 20편이며 이중 CJ E&M 계열의 채널이 총 15편을 신규 제작·편성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상파 계열 채널은 총 3편(MBC Dramanet 2편, KBS Drama 1편)을 신규 편성했다. 특히 상반기 10편의 드라마를 신규 편성한 tVN의 경우, 월·화 23시, 금·토 20시 25분 및 월~목 9시 40분에 주로 신규 드라마를 방송한 것으로 조사돼 지상파 채널과 차별화된 편성 전략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르별로는 △로맨스물이 총 11편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했으며 △범죄·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OCN은 ‘OCN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이튼비 추리·수사·스릴러 등의 장르물들을 지속적으로 제작·편성해 시청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PP 드라마에 대한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편 중 11편의 드라마에 대해 총 13건의 심의 제재가 진행됐다. 종류별로는 법정 제재가 7건으로 전체 심의 제재 건수의 53.8%를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폭력 유지’와 ‘광고 효과’ 위반이 각각 6건, ‘방송 언어’ 4건, ‘수용 수준’ 3건 순이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중 공신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일환으로 7월 22일에는 보다 효율적인 산업계 지원과 방송장비 인증체계의 조기 확립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30여 개의 방송장비 업체와 정장림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 과장 등 관련 기관에서도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내 방송장비 시장의 활성화와 방송장비제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소개했고, 방송 산업계 대표자들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KBS는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기 KBS 방송장비인증센터장은 “KBS 방송장비 인증센터는 방송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방송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증센터는 단순한 장비의 성능 충족 검증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신뢰와 품질 향상까지 방송장비 제조업체들과 상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인증, ‘신규장비 개발지원’ 등 다양한 인력자를 제공한 국내 방송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통해 공적 책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

했다.

현재 방송시장은 다매체 다채널 플랫폼의 등장과 모바일/세컨드스크린 등 방송시청환경 변화, 4K/UHD의 방송 패러다임 변화와 이로 인한 IP 전송 환경 등 변화의 기로에 있다. 그만큼 틈새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장비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어, 레도오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방송 시장은 새로운 장비의 등장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전체 방송 워크플로우를 가진 해외 유명 장비업체의 제품들이 그 선두에 서게 되며, 기타 중소기업의 제품들과 국내 방송장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간 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과 방송사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비를 제외하면 국내 방송시장에서 장비 국산화율과 해외 진출은 미비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KBS 방송장비인증센터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설립돼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단체와 협력, 국내 장비업체와 기술 교류 등을 통해 국산 장비의 활성화와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더욱 준비 중이다. 그간의 노력 이상으로 관련 방송사와 업체의 교류가 필요하고, 현재가 국내 방송장비 시장에서 중요한 시기라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진별 jnb1001@kobeta.com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1호 인증 탄생 “국내 방송장비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도움될 것”

KBS 방송장비인증센터(KBS Broadcasting Equipment Certification Center)가 국내 방송장비 산업발전 기여와 방송장비 해외 진출을 위해 방송장비 시험인증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첫 번째 인증 결과를 탄생했다. KBS가 실시하는 인증 과정은 지난 5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 많은 산업체들의 관심과 인증 신청이 이어졌고, 엄격한 시험 절차와 공정한 품질 결과로 인증의 신뢰와 함께 국내 방송장비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KBS 방송장비인증센터의 인증을 받게 되면 제품에 KBS 인증 마크를 붙িয়ে 되고 이는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과 신뢰를 한층 높여주게 된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국내 지상파인 KBS, MBC, SBS 등에 대해 많이 알려진 상태이다. 때문에 KBS의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는 타제품 보다는 구입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번 1호 인증을 받은 (주)스펙트럼통신기술의 지상파 DTV 수신인증 나 역시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KBS 인증을 받았

다고 하니, 인증센터는 앞으로 국산 방송장비의 해외 진출을 위해 더욱 그 범위를 확장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산 방송장비는 외산에 못지않은 성능과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신뢰성 및 업체 인지도 부족, 글로벌 마케팅 능력 부족, 사후 서비스 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 못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신뢰의 부족으로 구매 주체와 국내 방송장비 제조의 성장을 방해해 온 것이다. 하지만 KBS 방송장비인증센터의 설립으로 인해 정식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아이기는 달라진다. 가격적인 면과 품질적인 면이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KBS 방송장비인증센터는 앞으로 관련 기관/방송사와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자체 인력 보강 등 인증센터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예정한다. 또한, 자체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별 성능 시험 시설을 보강하고, 무료 인증 등 인증센터 운영 기반 안정화와 국제 인증 기관과 교차 인증 추진 등 인증센터의 인

과학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다

과학기술계 최대 행사 ‘과학창조한국대전’ 폐막



나라를 일으켜 세운 70가지 과학기술 전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라며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 70선 주역(개인, 출연(연, 기업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기업, 6개 벤처기업, 200여 개 학교, 50여개 과학문화활동단체 등 총 30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광복 이후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에는 흑백 텔레비전을 비롯해 통일배, 나로호 등이 전시됐으며 우장춘, 이휘소 등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유품도 전시됐다. 또 기업 출연(연)의 첨단 과학기술 체험관에서는 SK텔레콤과 LG전자가 사물인터넷(IoT) 관련 혁신 제품을 선보였으며, KTN는 5세대(5G) 실용화 제품을, 삼성전자는 스마트 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시장을 꾸몄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신기한 정보통신기술(IC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행동패턴 인식 로봇’, 국가수리과학연구원(KOITA)의 ‘3차원 수학체험’ 등의 부스에서는 일반인들도 첨단 과학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미래관은 미래 과학기술의 꿈을 심어주는 로봇, 우주, 드론, 가상현실 등 4개 테마의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재난대응 인간형 로봇 ‘롤랑’, 달탐사를 위한 발사체·탐사선 모형, 실시간 촬영을 시연하는 드론, 고해상도 가상현실(VR) 등을 직접 보거나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됐다. 이외에도 로보티즈 스타트업 컴(Robotis Stage Cup, 로보틱스대회) 등 일반인 대상 경진대회, 창의 락 페스티벌 등 창의인재를 위한 과학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광복 후 과학기술 70년을 돌아보는 주제 영상과 현대 무용 공연이 펼쳐졌는데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끌어 온 과학기술의 발전상과 미래 과학기술의 희망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관객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광복 이후 우리

전순희 imaeonarm@naver.com

방송기술교육원

[비디오 포스트 프로덕션(2차)] 교육과정 안내

• 교육목적

Premiere에서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기능 습득

• 교육기간 2015.08.19(수) ~ 08.21(금), 총 3일

• 교육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 15명

• 교육장소 KBS수원센터 인재개발원 내 방송기술교육원 3층 PC1실

• 접수방법 7월 30일(목)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 교육 비 무료(중식을 제외한 기타 숙식비 및 교육생 출장비 자체부담)

• 담당 자 강민정 과장, 민서진 연구원

• 문의 처 사무실 02-3219-5640-1 / 교육과 031-219-8261-2

• 이메일 bea@kobeta.com

일정	시간	강사	교육 내용
	13:40~14:00 (20분)	방송기술교육원	• 교육사업 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1일차 8월 19일 (수)	14:00~18:00 (4시간)		• Adobe Premiere 소개 - Adobe Creative Cloud • 영상포맷과 트랜스코딩 • Adobe Premiere에서의 Workflow • 프로젝트 설정과 미디어의 체계적 관리 - 미디어셋팅, 프로젝트 셋팅, 롤러오기 • 기본편집하기 - Overwrite, Insert, 3점 편집 • 기본편집 다듬기 - 수동으로 다듬기 • 기본편집 다듬기 - Trim을 이용하기 (Ripple, Roll, Slip, Slide) • Multi-Camera 편집 - Sync 맞추기
2일차 8월 20일 (목)	12:00~13:00 (1시간)	신익석 전문강사	중식
	13:00~17:00 (4시간)		• Audio 편집 - Audio Mixing, Audio 효과 관리 • Adobe Audition과 연동하기 - Noise 제거 • 효과 적용하고 매-레이아웃하기 - Effects Rack, Keyframe animation • Title Designer 사용하기 - 자막, 타이틀, 도형 넣기 • 편집기에서의 합성1 - Keying, Blend Mode • 편집기에서의 합성2 - After Effects와의 연동 • 색보정 - Contrast, White Balance, Look
3일차 8월 21일 (금)	12:00~13:00 (1시간)		중식
	13:00~17:00 (4시간)		• 프리미어에서 색보정하기 - 3-way color corrector, Shot Matching • Adobe Speed Grade와 연동하기 • 출력하기 - 출력포맷 설정, Adobe Media Encoder • 프로젝트 아카이빙 • 설문조사 및 종료
	17:00~17:10 (10분)	방송기술교육원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Sound Reinforcement, Mind Reinforcement

배 용
한국교통방송 광주본부 방송기술부 차장 대우

2015년 5월 어느 날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지상파 방송기술인을 대상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교육하는 ‘글로벌 오디오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생을 뽑는다는 내용이었다. 59회 AES(Audio Engineering Society) 콘퍼런스 참여와 사전 투어 등이 곁들여진 이 해외 교육은 방송 산업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고심 끝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얼마 있어 합격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 캐나다 현지에서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사전 교육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한 뒤 떠난 캐나다 해외 교육, 걱정과 우려를 뛰어넘는 뿌듯함을 안고 돌아왔다. 그리고 방송 엔지니어로서 마음가짐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고귀한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본다.(다만 AES 콘퍼런스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미흡한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한다.)

AES(Audio Engineering Society) Conference란?

국제오디오공학회가 주관하는 AES(Audio Engineering Society) Conference는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 개최되며 오디오 전문 콘퍼런스가 다. AES Convention 2회, Conference 2회가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세계적인 방송 오디오 장비 제작사의 최신 기술 관련 정보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Technical Tour에 참여해 실제 오디오 스튜디오 및 콘서트홀의 녹음, 무대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올해로 59번째를 맞이하는 AES 콘퍼런스는 7월 15~17일 동안 캐나다 퀘벡의 아름다운 도시인 몬트리올에서 진행되었다. 매일 대학교의 음악학과에 의해 주최된 이 콘퍼런스는 시스템 디자인, 케이스 연구 분석, 수치, 최적화, 설치, 그리고 음향 시스템 테스트 등의 실제적인 접근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이 진행됐다.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음향 시스템을 만든 디자이너들과 음향 재생산 기술자들이 카노트 연사로 참여하며 다국어 질문지를 통한 토론, 시설 투어 및 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기도 했다.

AES 59th Conference에는 어떤 내용이?

올해로 59번째를 맞이하는 AES 국제 콘퍼런스는 이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모든 전문가들을 위한 포럼으로 라이브 공연 음향(사운드)과 고급 기술을 공유하고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플랫폼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캐나다 퀘벡 주 몬트리올, The New Music Building of McGill University에서 Pre-Conference Day 투어를 포함하여 4일 동안 진행됐는데, Tutorial, KEYNOTE, PAPER, Tour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에서 직무 적합성과 개인적 관심을 반영해 11개 정도의 세션을 골라 4일 동안 골고루 들었다. 거기다 Pre-Conference Day tour와 테크니컬 투어도 곁들여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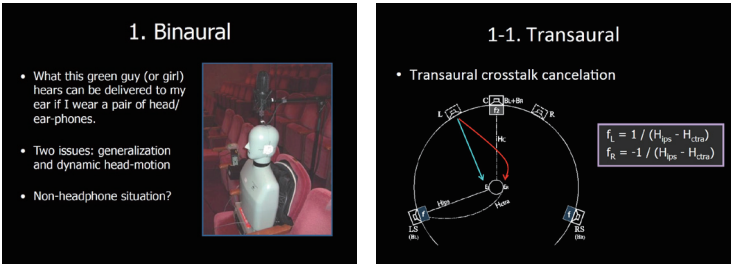
AES 59th Conference 그 열띤 현장 속으로!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 중 인상적으로 다가온 강의들이 있었다. 콘퍼런스 동안 경험한 Tutorial과 Workshop, Paper와 투어 중 몇 개를 골라 서 간단히 소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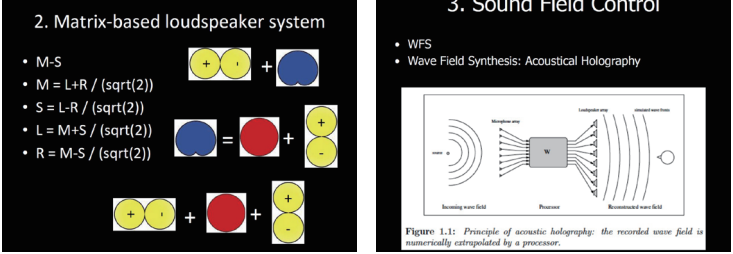
1. RIT University ‘김성영 교수’ 강의: ‘3D Audio lecture’

▶ Outlines

a. Binaural/Transaural system



b. Matrix-based loudspeaker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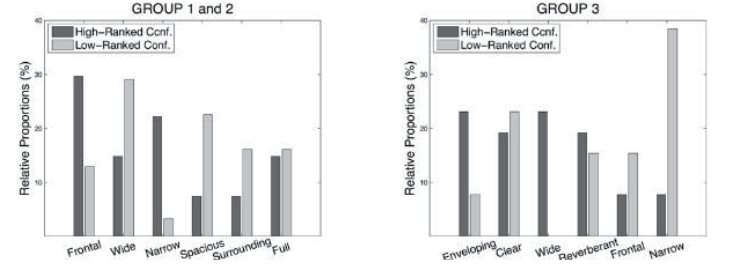


d. Discrete-Channel based system

4. Discrete-Channel Based System

- A discrete channel-based system refers to a multi-channel audio that assigns, delivers, and reproduces number of independent signals only through their designated channels.
- Immersiveness comes from height channels.

- ▶ 3D audio : Peripheral(high precision/localizability)->Immersive(high presence/spaciousness)
- ▶ 라우드스피커 배열은 4채널 height-ambience 재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 ▶ 신호하는 배열과 관련된 지각 특성은 복시사람들(GROUP1 and 2)과 일본사람들(GROUP 3) 사이에서 다르다.(아래 그림 참조)



2. CIRMMT(Centre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Music Media and Technology) Tour

- ▶ CIRMMT(Centre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Music Media and Technology)은 사무실과 실험실을 가진 McGill University's Schulich School of Music's Elizabeth Wirth Music Building의 8층에 위치함.
- ▶ 이곳은 6개의 실험실(laboratories)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학제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음. 또한 이 실험실은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공간을 위한 특별한 음향 특징을 갖도록 디자인돼 있음.
- ▶ Immersive Presence Laboratory, Spatial Audio Laboratory 등을 방문해 연구 시설과 시연 관람.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듯했다.

3. CBC Radio Studio Tour

퀘벡 주 몬트리올에 위치한 CBC Radio의 뉴스룸, 다양한 스튜디오, 공개계 등을 방문해, 방송 시설과 방송 장비, 그리고 방송 현장을 탐방했다. 우리나라 방송국과 많이 다르지 않았지만, 생방송 스튜디오 내 색다른 배열과 대체로 온 공개방송 시설 등이 눈에 들어왔다. 생방송을 진행하는 부조성실에서는 STUDER ON-AIR 3000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스튜디오들은 좀 더 나은 음향조건을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특히 CBC 방송국을 소개하는 안내원의 열정과 자부심이 견학하는 내내 느껴졌다.

4. Reverberation Enhancement(paper)

- ▶ Song Hui Chon(Ohio State University, OH): Listener's Response To String Quartet Performances Recorded In Virtual Acoustics
- 가상의 음향조건에서 음악전문가들과 한 실험.
- 녹음된 샘플로 롱 음향시설에서는 리스너들이 Sound distance, Room size, Clarity, Loudness 등을 감지할 때, 자연 상태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함.
- 따라서 가상의 음향실 음향시설에서 참가자들이 공간과 퍼포먼스의 인식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음.
- ▶ Sebastian Schlecht(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Fraunhofer IIS): Reverberation Enhancement Systems with Time-Varying Mixing

9. Sound Reinforcement Console Design-now and future	Bob Snelgrove(Digico), Don Wershb(Solid State Logic), Kevin Kimmel(Yamaha) Tanna의 SSL Live console, Digico S21 등 특징 소개
10. Mixing Workshop	Buford Jones(Meyer Sound)가 믹싱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 등의 역할을 소개하고 믹싱할 때의 자신의 노하우 소개 - Song Hui Chon(Ohio State University, OH): Listener's Response To String Quartet Performances Recorded in Virtual Acoustics - Sebastian Schlecht(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Fraunhofer IIS): Reverberation Enhancement Systems with Time-Varying Mixing Matrics - Doyen Ko(Belmont University, TN): Evaluation of a New Active Acoustics System in Music Performance of String Quartets
11. Reverberation Enhancement	

3. Technical tours

- Maison Symphonique 탐방

4. 이외의 세션(Session)

▶ Keynote

• Bob McCarthy

• Keynote: July 15th 2:00 pm ~ 2:50 pm

• Topic: Sound systems tuning and optimization made simple and affordable

• Venue: Tanna

▶ Demonstrations

• Spatial Sound Reinforcement: Hands on!

- Hosted by Fraunhofer IDMT

- July 16th 2015 11:00 am - 2:00 pm

• FLEX Acoustics Inflatable Membrane Low-Frequency Absorbers

- Hosted by FLEX Acoustics

- July 16th 2015 12:00 pm - 1:15 pm

Matrics

▶ Doyen Ko(Belmont University, TN): Evaluation of a New Active Acoustics System in Music Performance of String Quartets

- 공간적인 본래의 음향시설에 대해 향상된 음향시설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보임 : C1(18.2%)·C2(31.8%)·C3(50.0%)

- 뮤지션들은 세 가지 음향조건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해 설명할 수 있음. 이 세 가지 주요 근본적인 지각 수치들은 stage support, spatial impression and tonal balance다.

- 음향조건에 대한 뮤지션의 선호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 반향의 질(quality of reverberation), 반향의 양(amount of reverberation), hearing other musicians and 높이 감각(height sensation)이다.

5. Technical tours(Maison Syphonique 방문)

AES 콘퍼런스 중 테크니컬 투어는 7월 15일과 17일 두 번 있었다. 우리 일행은 15일에 몬트리올을 심포니 하우스(Maison Syphonique)를 방문해 음향시설과 운영현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오르간 연주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영광을 안았다.

그 외 이모저모!

AES 콘퍼런스는 다양한 강의와 투어로 구성된 오디오 전문 콘퍼런스다. 강의 전후에 있는 독특한 이벤트는 이 콘퍼런스를 찾은 사람들의 있어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적지 않은 방송 경력 속에 안일함을 곁에 두고 살던 내게 이번 콘퍼런스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이다. 음악과 음향을 향한 창작자들의 열정과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음향 엔지니어의 자부심은 대단했고, 특히 CIRMMT(Centre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Music Media and Technology) 내 다양한 실험실과 연구시설은 내심 부러웠다. 마지막대로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한 MBC 정원석 차장 대우와 SBS 홍창훈 음향 감독, 방송 기술교육원의 강민정 과장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이 글을 맺으며

이번 AES 콘퍼런스가 열리는 캐나다로의 ‘글로벌 오디오 전문가’ 연수는 나에게 있어서 색다른 경험과 방송 엔지니어로서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적지 않은 방송 경력 속에 안일함을 곁에 두고 살던 내게 이번 콘퍼런스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이다. 음악과 음향을 향한 창작자들의 열정과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음향 엔지니어의 자부심은 대단했고, 특히 CIRMMT(Centre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Music Media and Technology) 내 다양한 실험실과 연구시설은 내심 부러웠다. 마지막대로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한 MBC 정원석 차장 대우와 SBS 홍창훈 음향 감독, 방송 기술교육원의 강민정 과장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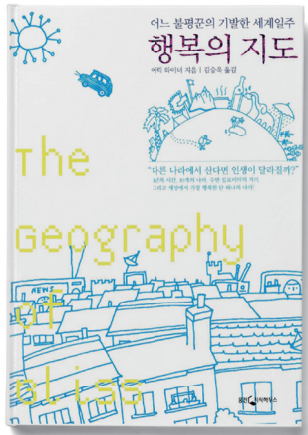
책과 함께 떠나는 여름휴가

이 책 가지고 휴가가자! 휴가철 추천도서 10권

나는 '책과 함께하는 여행'을 즐긴다. 같은 책도 서울 도심 속에서 읽는 것과 휴가지에서 읽는 것은 천차만별의 다른 맛과 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휴가 계획을 앞두면 가장 먼저 서점에 들러 먼 여정을 함께 할 동반자 구하기에 고심한다. 알다시피 여행이란 '어디로' 떠나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곳에 소개할 10권의 책은 내 여행 '최고의 파트너'가 돼주었던 녀석들이다. 눈앞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잊게 할 만큼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거나, 여행지를 영원히 기억할 만큼 아름다운 추억으로 물들여 놓은 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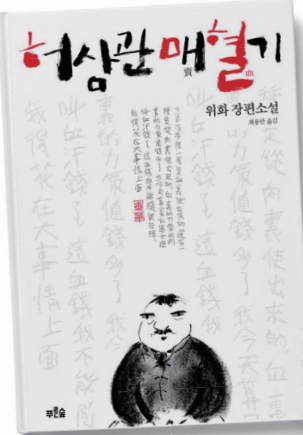


김애란
작가 북클럽리스트: 독서컨설팅, 스토리텔러, 중국어이벤트 기획자, 기타 TV 기반 TV 기획(동원방송), 커뮤니케이션(CO) CEO



여행와이 『행복의 지도』

이 책은 한 마디로 '행복'에 관해 편집증을 가진 한 남자의 세계여행기다. 전직 <뉴욕타임스> 기자인 자자 예릭 와이너는 어느 날 누구나 한 번쯤 풍어뽕을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한다. "다른 나라에서 살면 행복할까?" 그는 이 질문을 들고 1년간 지구상 10개 도시, 수만 킬로의 거리를 총횡무진 누빈다. 행복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의 신의 섬에 따라 진리와 성찰로 한 평생을 살아가는 나라까지, 365일만 지상 최고의 행복국가를 찾아 떠난 자자의 기발한 여행은 무엇보다 여행지에서 일기에 안성맞춤! 함께 할게 자신만의 '행복의 지도'를 완성해보면 좋을 것이다.



여행와이 『허삼관 매월기』

얼마 전 하정우, 하지원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된 중국 소설이다. 주인공 허삼관은 삶의 고비마다 피를 팔고 또 팔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기 위해, 아들의 병원을 위해 본인 은 고단한 길을 걸어야 했고, 피를 팔아 버렸다. 국공합작과 문화혁명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거친 현대사 물결 속에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피를 파는 한 소시민 가상의 매월기는 시종일관 눈물겹다. 역사의 폭력 앞에 속수 무책인 기층민들의 삶을 가장 생생히 무겁고 우울하지 않게, 특유의 유머러스함을 전폭 바꾸려 엮고 있다. 단숨에 읽어 내려갈 정도로 재미 가득한 소설이다.

칼럼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구글과 EU,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결과 내용의 공정성, 가입자 정보에 대한 보호 여부, 소비자의 애플리케이션 결제 보호 조치 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영역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재 구글이 EU 내 각종 규제 기관과 충돌하고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은 개인 정보 침해의 문제다. 2012년 10월 EU 회원국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기관들은 구글에 실정법에 어긋난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정을 명령했다.

당시 27개 EU 회원국들 가운데 그리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24개국이 이런 내용의 서한에 서명했다. 회원국들의 요구는 2012년 3월 구글이 유튜브, G메일, 구글+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웹서핑 기록 등 개인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바꾼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프랑스의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구글 측에 4개월 내 유럽 기준에 맞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모두 6개국 정보보호기관들은 2013년 4월 구글의 통합 프라이버시 정책이 EU 기준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2013년 12월 스페인 정보보호국은 구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90만 유로를 부과했고, 프랑스의 CNIL 또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방식과 활용 경로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며 벌금 15만 유로를 부과했다. 중요한 것은 2013년 구글의 서비스 이용자 빅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도입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EU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하는 중이다.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구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의 인권과 충돌한다는 논쟁을 촉발했다. 이 판결은 위에서 언급한 구글의 통합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스페인과 프랑스의 벌금 부과 이후에 나온 판결이다. 이처럼, 구글과 EU는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에서 개인정보의 규제가 엄격한 E-mail 서비스 시장에서만 자극 기업들

이 구글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인터넷 검색 시장과 달리 E-mail 시장에서는 독일 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절대적 강세를 보인다. 검색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는 구글은 2009년 3%의 점유율에서 2013년 6.5%로 증가했지만 검색엔진의 점유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검색 시장에서 0.02%대의 점유율을 보인 GMX는 2013년 집계 26.3%로 가장 높은 E-mail 사용자 수 확보하고 있으며, 뒤이어 Web.de가 26.1%의 점유율을 보인다. 비록 이용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T-Online도 제3의 사업자로서 2013년 9.1%의 E-mail 사용자 수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 검색 서비스와는 다르게 E-mail의 이용에서 독일 내 서비스가 우세를 보이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독일 내 분위기에서 비롯됐다. 당시 프랑스의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구글 측에 4개월 내 유럽 기준에 맞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모두 6개국 정보보호기관들은 2013년 4월 구글의 통합 프라이버시 정책이 EU 기준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구글과 EU는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에서 개인정보의 규제가 엄격한 E-mail 서비스 시장에서만 자극 기업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2년 3월 구글의 통합 개인정보 정책 변경 이후 EU의 각종 정부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 영역의 사건이며, 구글에 각종 정부가 벌금을 차례로 부과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독일의 E-mail 시장 상황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구글에 대한 규제에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의 스트리트뷰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소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에도 일관된 규제 정책의 적용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사실

DMB 방송의 재발견

2005년 12월에 지상파 DMB 방송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됐다. '손 안의 TV'로 불리며 등장한 DMB는 이동 중에 TV, 동영상, 라디오, 문자 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만든 순수 국내 기술로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는 물론 기술 수출 기대까지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무료 방송 서비스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 채 가입자 수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료로 전환된 DMB가 최근 고화질 서비스로 다시 접어들면서 비슷한 서비스이지만 끊임 없고 화질 좋은 N-스크린 서비스가 등장하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유명무실한 서비스를 선보였던 DMB가 최근 고화질 서비스를 발판삼아 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 정보를 부가시켜 화질을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 SNS 활성화에 따른 편의성, 다양성·전파성 등 모바일 트렌드가 가능한 스마트 DMB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인터넷 통신망으로 부가된 신호를 받기는 하지만 그 양이 적어 로지 데이터만으로도 영상을 구현하는 주문형 비디오(VOD) 사업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요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구나 지난달 22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인터넷 TV(IPTV)에서 지상파 3사의 방송이 완전히 중단된 이후 지상파 DMB 서비스

비스 이용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상파 DMB 서비스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스마트 DMB 방송 사업자인 옴니텔은 스마트 DMB 애플리케이션이 1,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월 사용자가 150만 명이 넘었다고 7월 28일 발표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다매체 시대의 다양한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콘텐츠들 바야흐로 콘텐츠 홍수 속에서도 무료 보편의 서비스라는 지상파방송과 DMB를 무시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스마트폰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보급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압축율이 더 높은 코덱을 사용하면 저급보다 훨씬 더 개선된 화질을 서비스할 수도 있고 통신과는 달리 1대 다수의 수신이 가능한 방송 플랫폼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통합 재난망과 같이 사용될 경우 DMB의 유용성과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득 격차 없이 무료로 언제나 어디서나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무료 보편의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DMB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며 재난 발생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난시청 지역을 개선하고 터널이나 지하철 구간에서도 중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DMB의 매체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1,000호 5월 20일			
발행인 이후삼	편집주간 이성의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편집위원 백낙운, 이승호, 김영권, 최현용, 나경록		전화 02-3219-5637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별,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팩스 02-2647-6813	
기획실 강동균		트위터 @KOBETA.COM	
인쇄인 성진&화성프린트		홈페이지 www.kobeta.com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 kobeta@naver.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공지영 『지리산 행복학교』

딱딱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칠 무렵 이 책을 만났다. '지리산'과 '행복'이라는 낱말이 빛어내는 묘한 앙상블이 책을 가까이 손에 들게 만들었다. 모두가 부를 향해 불나방처럼 질주하는 시대, 작가 공지영은 그에 역행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지리산에서 만났다. 1년 3개월은 일하고 나서는 손에 여행하는 이들, 사전을 들고 차를 팔며 휴식을 찾고 사는 이들, 연봉 200만원(2000만원)이다. 분명 200만원이기에 만족하며 지리산 종파에서 서를 쓰고 사는 이들까지. 언뜻 현실감이라는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세속과 욕망에서 벗어난 그들은 적어도 도심 속 시민들에 비해 일 때는 행복해 보였다.



알프레드 아틀러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자나 해 출판계의 찾아수는 '아틀러의 재발견'이 아닐까 싶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층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 둘에 비해 (적어도 국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 그가 '미움 받을 용기',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등으로 우리 곁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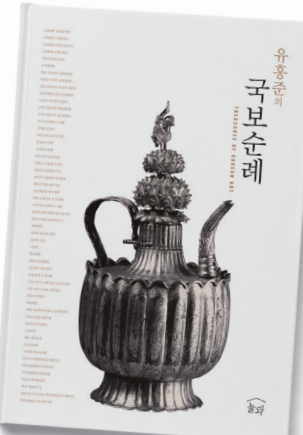
이 책은 특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건과 함께 아틀러 철학의 정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은 몇 줄로 요약 정리한 책이다. 책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행자의 푸른 바다 앞에서 아틀러가 들려주는 '열정, 용기, 자신감'을 읽는 기분은 직접 경험해야 한다.



루이스 세룰레타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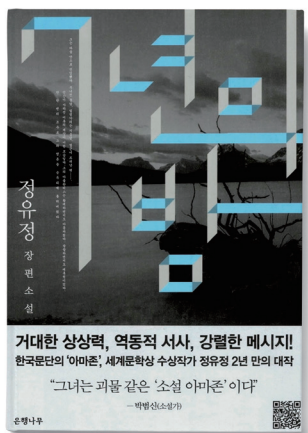
항구의 고양이 소르바스는 어느 날 우연히 마지막 일을 맡으며 죽어가는 갈매기 정자를 만난다. 정자는 소르바스에게 자신의 일을 보호해 줄 것과 새끼가 깨어나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고 숨을 거둔다. 정자가 떠난 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르바스를 통해 자라는 어류리지는 어느 존재 간의 화합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서로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존재의 다름과 다양성, 다채로움을 존중하고 아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유럽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판매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어른을 위한 동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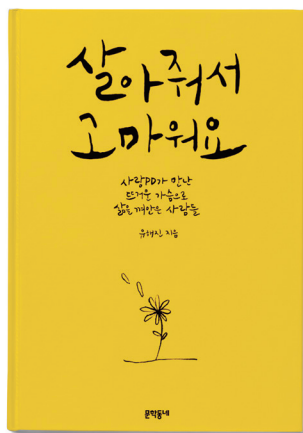
유홍준 『국보순례』

'나의 문화유적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의 국보순례 안내서. 이 책은 국내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기발한 유적을 보았을 때도 볼 줄 모르다면 무슨 소용일까. 유홍준의 책들은 우리에게 '보는 눈'을 길러주는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 책이 지칭하는 '국보'는 나라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국보와 보물 외에도 저자 자신이 명칭이라 여겨는 소중한 우리 유물까지 포함해 이룬 것이다. 막대한 기간 한 문화재 관련 책들과 달리 넘치는 입담만큼 뛰어난 필력으로 문화재의 뒷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고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다. 추사 김정희의 수선화에서 왕실국시대 향이라까지, 애발레종에서 쌍룡사 절간사탑에 이르기까지, 그 논리와 발단을 좇아 의미 있는 국보순례에 동참해볼만 아닐까?



정유정 『7년의 밤』

마치 괴물의 입처럼 강한 흡입력을 지닌 소설이다. 압도적 서사, 생생한 리얼리티와 가공할 상상력으로 무장한 정유정의 필력에 시종일관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소설은 7년의 밤 동안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난 필연적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딸의 복수를 꿈꾸는 남자와 아들의 목숨을 지키려는 남자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 그리고 진실의 반전까지. 단언컨대, 소설 읽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정유정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작가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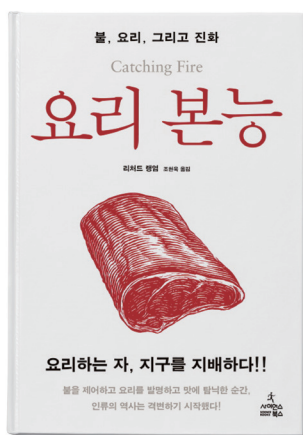
유해진 『살아줘서 고마워요』

'사랑FO'로 유명한 유해진 다큐멘터리 피디의 잔잔한 에세이다. 가슴 절절한 사랑 풍경과 상처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브라운관에 옮겨 감동을 전하던 그가, 그간 MBC <후한나리 사랑>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뜨거운 가슴으로 삶을 개연은 이들, 처참한 상처에도 희망의 꽃을 피워낸 이들…… 딱딱한 일상을 떠나 위로와 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말콤 그래드웰 『다윗과 골리앗』

'블링크', '티핑포인트', 등으로 세계적 경영사상가 반열에 오른 말콤 그래드웰이 이번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싸움 중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들고 나왔다. 누가 봐도 승리가 확실했던 골리앗을 단숨에 몰아낸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기존의 방식을 깨뜨리고 승리를 거머쥔 '창조적 약자'들의 일화를 소개한다. 저자의 메시지는 명쾌하다.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 아닌 상투론은 다윗들에 의해 진보·발전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몸을 깨뜨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언더독, 아웃사이더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략적 방법론을 아주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설명해준다.



리처드 램프 『요리 본능』

최근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먹거나, 요리하거나. 일명 '먹방', '쿠팡'이 대세로 통한다. 이 책 '요리본능'의 저자 리처드 램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류에게는 불을 다루고 음식을 조리하는 원초적 본능이 살아 있다. 전 국민이 요리사로 빙의한 요즘,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 놀랄까만 한다. 이 책에서 그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우르고 지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요리도 진화해왔다. 요리란 자고로 인류학과 사회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문학, 영양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다. 문명의 원동력이었던 요리, 그 발전과정과 가치를 오목조목 담고 있는 흥미진진한 인문서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터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KOBASHOW 2016



26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6.05.24-27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이앤엑스·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서울특별시·KBS·MBC·SBS·EBS·OBS·한국음향학회·한국음향예술인협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아리랑국제방송·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